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분단된 약소국인 우리 학국이 남북지양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작게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우리의 실력을 꾸준히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한몫을 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북방외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마땅하다. 우리의 이런외교제적 인장은선 북방외교는 물론 서방외교 남방외교 및 동방외교를 전방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개념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우방과의 기존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다각도로 공고하게 구축하는 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만 한다.

時評

美法大부터 공판의과



宋相現

<서울大法大교수>

공인회계사들이 바쁘게 태평양을 가로지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로 들러있는 미국 통상대표부의 회의실상에도 직원과의 밤을 꼬박 새우면서 우선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상공부등 관계관들의 역참스카우트 모습도 직접 보았고 워싱턴이나 뉴욕의 중요한 모험에서 우리의 경

미는 변함없이 크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잘 아는 것으로 자처하고 있고 그곳에 살았거나 유학했던 지도층 인사도 부지기수여서 한미관계는 지난간 냉전시대의 군사동맹관계이거나 오늘날의 통상협력 파트너관계이거나 간에 원활하고 빈틈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요즘에서 양국관계는 통상마찰분제로 지극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양국의 정부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숨겨진 협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일방면제로 큰 규모의 국인 학국의 수출품이 덤핑혐의 등으로 미국법상 문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날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 하면 민간구매사절단의 파견되어 거액의 수입계약을 맺었다고도 하고 양국의 거래당사자간 에 분쟁이 생겼다고 하여 변호사나

제적 어러움을 설부터에게 엄실하는 경제계 지도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면서 시사성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돈을 들여 1회성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무릇 몇몇인가. 정부나 기업 또는 경제단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주재원을 미국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도 결국 한국에서 오는 손익내에 세월이 다

한국식 발상으로 연방정부 고위직 인사를 당장 면담하자고 우겨면 시 했다가 일만인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주권자인 사전 검토도 없이 커다란 미국 법률사무소에다 일을 맡기고는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다.

그러나 구술이 서말이라고 편애야 보배란 말과 같이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노련함이 제각각의 나라이고. 따라서 그 나라에서 가장 창조적 기질을 수렴하며 가장 영감을 얻는 전문가 전문가를 손꼽아 보면 법과대학과 대학법학사사실과 법학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우리는 이제에 착안하여 이들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영감을 얻는 국제차용의 법조출신 인사를 우리 편이로 만들 어갈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영행동안 정부나 기업들이 학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를 연구하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의 학과와 프로그래밍에 많은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렇고 학과와 연구의 범위와 학자들 길러낸 공로도 있었으나 그들이 미국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적었고, 계획적으로 있었더라도 재정지원의 인도를 의식하여 수렁기부사태 또는 코리케이에서 건파와 같이 조사당하는 수모를 겪기까지 하였다. 이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영감을 얻는 법과대학의 질적제로 기틀을 제 공하여 한국법조의 종화적 연구 그리고 우리의 대외비활을 기

데 북에서 체제화·영속화하고 잠겨져 안들에서 우리들 도와할 미국외 전문가와 친구를 양성해낼 우리의 고루보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법의 지배'가 통하는 사회이고 70만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정계·재계·관계를 비롯하여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법과 법률가

란이 될수 있는 고루보로서 한국법 講堂(Chair Professor)를 설치할 때가 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매년 한국법을 배우고 나간 우수한 미국 법률가들이 학계에서 실무계에서도 전문내에서나 민간부분에서 활약하게 되고 이들이 일종의 사시에 두우리의 정부나 민간외교를 뒷받침하면서 우리 학국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집약하는 중심점으로 될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지난날을 돌리다 대학에서 태평양안 포명과 관련한 한국법 강의를 하고 시험을 치렀을 때 과거 10년정도의 수감하던 것과는 달리 약 70명의 법과 대학생·변호사·공무원들이 교실을 가득 메우면서 보편적 관심과 열기는 바로 이와같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때가 무르익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수 있다. 일부이나 중류이 이미 20여년전부터 모두 이같은 노련을 소위있어 이 행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